

Dubai유, 하루만에 46달러로 급등

4월20일 1.76달러 상승 46.39달러 형성 ... WTI도 동반 상승 52.44달러

국제유가가 원유와 휘발유 재고감소 소식 및 미국 정제시설 가동차질 소식 등으로 상승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NYMEX의 WTI 선물유가는 전일대비 배럴당 0.15달러 상승한 52.44달러, IPE의 Brent 선물유가는 0.84달러 오른 53.78달러에 거래가 종료됐다.

Dubai 현물유가도 1.76달러 상승한 46.39달러를 형성했다.

국제유가 변화 (단위: 달러/bbl)

구 분		4/15	4/18	4/19	4/20
현 물	Dubai	45.02	44.03	44.63	46.39
	Brent	48.43	47.95	49.32	50.40
	WTI	50.48	50.47	52.26	52.60
	Oman	46.13	45.10	45.68	47.36
	Tapis	55.76	54.03	55.35	57.21
NYMEX 선물(WTI)	5월	50.49	50.37	52.29	52.44
	6월	52.06	51.47	53.57	54.03
환율(원/달러)		1032.40	1028.30	1023.70	1019.20

+ 적용환율은 전신환 매도 기준

국제유가 상승은 미국 EIA(에너지정보청)가 원유 및 휘발유 재고가 전주대비 각각 180만배럴, 150만배럴 감소한 3억1890만배럴, 2억1160만 배럴 수준에 그쳤다고 발표한데 영향을 받았다.

미국에서는 텍사스, 루이지애나 정제시설 가동차질 소식으로 휘발유 가격이 상승했으며, 무역상들은 하절기 성수기의 공급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5/04/21>